

팬심 저격...한발벌 별들의 축제 '후끈'

11-12일 2025 KBO 올스타전 '팬 페스트' 운영

굿즈존, 야구 체험존,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 마련 올스타 선수 참여 배팅존·피칭존서 원포인트 레슨 진행



야구인과 팬들이 하나 되는 축제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이 오는 11일과 12일, 대전에서 펼쳐진다.

KBO는 이번 올스타전을 맞아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 '팬 페스트존'을 운영한다.

팬 페스트존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외부 광장과 한밭야구장(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그라운드에서 마련되며,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현장감을 찾은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스텝 투 어'는 팬 페스트존 전역을 자유롭게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스타전을 방문한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 페스트 인포 부스에서 투어를 수

령한 뒤 스폰서존, 대학생 마케터존, 야구 체험존, 포토존 등 주요 부스를 체험하고 도장을 모두 모으면 올스타 굿즈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올스타전을 후원하는 주요 스폰서들도 페스트존에 다수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 체험과 함께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 KBO 올스타전 기념 공식 굿즈는 팬 페스트존 내 'KBO 마켓'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3년 만에 대전에서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을 기념하고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된 선수들의 영예를 담은 드림과 나눔 양 팀의 베스트 12 티셔츠가 최초로 제작돼 높은 소장 가치를 더할 예정이다.

'대학생 마케터존'에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인 '풀카운트 챌린지'가 진행된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임을 통해 팬들에게 직접 야구의 긴장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KBO 대학생 마케터들이 자체 제작한 굿즈 및 협찬 물품이 제공된다.

또한 야구 체험존이 운영돼, 팬들이 실제 야구장 그라운드 위에서 야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11일 또한 한밭야구장에서 오후 4시부터 4시30분까지는 퓨처스 올스타 선수 4명,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까지 올스타 선수 4명이 참여해 배팅존과 피칭존에서 팬들에게 타격과 투구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메인 게이트 앞 외부 광장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팬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11일 오후 3시,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각각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팀이 밴드 및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된 무대는 경기 전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시원한 바람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쿨링존, 대전에서의 올스타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공간이 마련된다. /주홍철 기자



KIA 최형우 "큰 부상 아니다"

우측 햄스트링 부종 진단 올스타전은 불참...후반기 복귀 전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해결사' 최형우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IA 구단은 9일 "최형우는 한마음정형외과 등 두 곳에서 초음파 검진을 받았고, 우측 햄스트링 부종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주무 플레이에 주의가 필요하고, 이번 주 올스타전 출전은 어렵다"며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치료 후 후반기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우는 전날 열린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3회초 주루 도중 오른쪽 허벅지 뒤쪽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됐다. 대주자로 이창진이 투입됐고, 구단은 이튿날 검진을 통해 부상 정도를 확인했다.

KIA는 시즌 초반부터 김도영 등 핵심 전력의 부상 이탈 속에 버텼기에, 최형우마저 장기 이탈할 경우 전력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팀 순위가 상위권을 목전에 둔 만큼, 그의 몸 상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후반기 초반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였다.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되면서 구단과 팬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최형우는 불혹을 넘은 나이에도 전성기 못지 않은 활약을 펼치며,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총 88게임에 출전해 타율 리그 3위(0.329), OPS 1위(0.996), 2루타 2위(24개), 장타율 3위(0.564)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FC가 지난 8일 '포퓰러' 유니폼 수익금을 전남대 병원에 기부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전남대병원 어린이 환자 후원

'포퓰러 유니폼' 수익금 전액 기부...아름다운 나눔 '훈훈'

프로축구 광주FC가 경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는 지난 8일 전남대병원에서 '포퓰러 유니폼 경매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홈경기에서 선보인 산리오캐릭터즈의 '포퓰러' 특별 유니폼을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 후 이를 경매로 판매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경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700만원은 전남대병원에 전액 기부됐으며, 해당 기금은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시민구단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신 전남대병원장은 "광주FC의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남대병원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불모지 광주 빙상 중흥 마중물 되겠다"

인/터/뷰 박병석 광주시빙상연맹 회장

학교·실업팀 창단 최우선...장기적인 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 현장과 소통, 생활체육·엘리트체육 상생 튼튼한 기반 다질 것

"침체된 광주 빙상의 중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신임 광주시빙상연맹회장은 9일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의 열정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30여 년 일선 현장에서 스포츠 행정을 경험한 박 회장의 화두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박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 훈련 여건, 장비 상태, 선수 안전, 훈련시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를 점검했고, 지도자·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광주는 동계스포츠 불모지나 다름없다.

전용 훈련장이 부족하고, 빙상장이 있어도 선수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시간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무초등학교가 유일한 빙상 육성학교이며 중학교 이상으로 연계되는 빙상팀은 전무하다. 실업팀도 없는 탓에 우수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실업팀 창단'을 꼽았다

그는 "실업팀이 없다는 건 선수에게 진로가 없다는 의미"라며 "선수를 길러도 지역에 남지 못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과 협의

를 통해 실업팀 창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 육성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아무도 남지 않는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해 중·고교 빙상팀 창단을 제안했고, 현재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생활체육이 튼튼해야 엘리트 선수층도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엘리트 선수들은 별도의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 청소년 체험교실, 동계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훈련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일 마련을 위해 발로 뛰며 기업 후원 유치에 나서고, 문제부·대한체육회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연맹 차원 후원회나 재



박병석 광주시빙상연맹 회장이 9일 영주빙상장에서 광주 빙상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단을 구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9월6일에는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대회인 '2025 광주시빙상연맹회장배 빙상대회(쇼트트랙)'가 열린다. 피겨 종목은 11일 별도 개최된다.

1994년 시작된 회장배 대회는 회장 공석으로 5년간 중단됐다가 이번이 부활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연 2-3회 대회를 정례화하겠다. 대회를 열어 시민들도 빙상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새롭게 빛나는 희망을 쏘아올릴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